

□ 주요내용(현황)

- (아동학대)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변화에 따라 공적 보호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사건 발생에 따른 즉각 대응 등 아동 최우선 보호 필요
- (자립지원)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른 나이(18세)에 자립해야 함에 따라 주거불안, 저소득 문제, 심리·정서적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
  - \* (주거) 임사취약주거 거주율 16.7%(실업률) 16.3%(일반 청년의 2배) (자살생각) 50%(일반 청년의 3배)
- (돌봄 주거환경) 도단위 지자체 중 주거빈곤\* 아동이 2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아동 성장 발달의 주요 근간이 되는 주거의 안전 확보 필요(민간후원 연계)
  - \* 컨테이너 거주, 재래실 화장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944,104명<sup>(전국)</sup> : ① 229,619<sup>(경기도)</sup>, ② 53,533명<sup>(경남)</sup>
- (학교밖·위기청소년 증가) 학교밖 청소년·위기청소년 지속 증가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
  - \* (가출) 2.1만<sup>'15년</sup>→2.4만<sup>'18년</sup>, (학교폭력) 3.9만<sup>'16년</sup>→5만<sup>'18년</sup>, (강력범죄) 3.8%<sup>'15년</sup>→4.8%<sup>'17년</sup>
  - \*\* (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) 206천<sup>'19년</sup> → 228천<sup>'21년</sup>

□ 추진실적

- (아동학대) 위기아동 사전 발굴·회복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총력 대응
  - (조기발견) 위기아동 조기발견 e아동행복지원사업 실시(1차수 1,558건)
  - (재학대방지) 재학대 우려 대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(47개 기관)
  - (가족기능회복 지원) 경남형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운영(5개소),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운영(1개소),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신규 운영(1개소)
  - (보호인프라 확충)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(진주시) 및 광역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으로 학대 피해아동의 의료적 회복지원 강화
  - (합동교육)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\* 실시(2회, 77명)
    - \* 시군전담공무원, 경찰, 교육청(학교),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
  - (아동학대 예방) 부모교육(4.26~), 그림전시전(8회<sup>'22.3월</sup>), 버스광고(4.5~9.30), 그림공모전(4.11~5.16), 캠페인(어린이날 등) 등 아동학대예방 사업 추진
- (자립지원) 자립지원전달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강화
  - (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신규 개소, '23월)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추진 ※ 최초 공모 시 응모기관 없음에 따라 유관기관 등에 사업 설명 등 참여 안내

- (대학생활안정자금 신규 지원)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통해 대학생활안정자금(2백만원/1회) 신규 지원(1회 추정 확보)
- (자립정착금 지원 기준 상향) 주거 등 초기 정착 비용 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5→8백만원으로 기준 금액 상향(1회 추정 확보)
- (돌봄 주거환경) 아이돌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수행을 위한 후원금 확보(목표 1억원 ⇒ 초과달성 1억5천)
- (학교밖·위기청소년) 학습 지원, 학업 복귀, 취업지원 등 확대
  - 학습 인력풀 지원 및 학습 멘토 활동지원비 지급, 맞춤형 1:1 입시컨설팅 확대 운영(1회<sup>'21년</sup> → 2회<sup>'22년</sup>)
  - 맞춤형 단계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28명
    - \* 노동인권캠프 운영<sup>신규</sup>, 기초 기술훈련 7개 직업군(바리스타, 애견미용 등) 및 기초기술 훈련장 12곳 연계 교육 운영(5~7월)<sup>신규</sup>
  -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위한 꿈드림청소년단 위촉, 홍보활동\*(SNS 35회, 광고 1회, 아웃리치 2회, 언론보도 28회, 유튜브 영상 4회)
    - \* NC다이노스 경기장 내 전광판 광고 송출('22.4.15.~5.2, 경기 전 최소 3회 이상)

## □ 주요 성과(결과)

- 위기아동 조기 발굴,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서비스질 향상
  - e아동행복지원 사업 통한 위기아동 99건 발굴(초기상담 91건, 드림스타트 연계 8건)
  -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 감소(48.4명<sup>'21.10월</sup>→30.9명<sup>'23월</sup>) 통한 서비스 제공 향상
  - 아동학대 신고 대비 학대 사례판정 감소(470건<sup>'21년 1분기</sup> → 227건<sup>'22년 1분기</sup>)
-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
  - 기본 사후관리(820명) 및 상담을 통한 자립요구에 맞는 중점 사례관리(85명)
  - 대학생활안정자금 신규(107명) 및 자립정착금 상향 지원(208명)으로 자립기반 강화
-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19세대 주거권 증진
-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지원자 확대(73명<sup>'21년</sup> → 93명<sup>'22년</sup>) 및 1:1 맞춤형 입시컨설팅 운영(<sup>'21년</sup>1회, 만족도 6.2점 → <sup>'22년</sup>2회, 만족도 6.44점)
  - ※ NC다이노스와 협의를 통한 광고 송출로 예산 절감(약 30백만원)

## 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(청소년지원체계 인프라 강화) 학교 밖 청소년·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강화, 진로·직업교육 확대 및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→ 체계적·효과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실시 및 매뉴얼 개발·보급 예정('22년 하반기)